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1년 7월 8일 (금)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지부/ 전시관 사역 | 2쪽 |
| 3. 대구지부 기본과정 안내 | 3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47) 산의 모양 - 이재만 | 4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26) 모세가 태어나다 - 이종현 | 6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2) 성경적 세계관의 의미와 적용 3 - 김무현 | 9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30)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12쪽 |

인사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의 운행을 전지전능하심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나의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다른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추구하지만 생존경쟁 속에서 찌들어 가는 세상 속에서는 좀 넉넉하게 양보하고 여유 있게 기다려 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참 소망이 있으니까요.

말, 소리, 이론의 홍수 속에서 점점 목말라하는 현대인들은 말보다는 참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진정성을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녀답게 평소의 우리 삶이 너그럽고, 풍성하고, 친근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정해 주고, 도와주는, ...것들로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임진규 올림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9월 1일(목)부터 창조과학 기본과정(매주 목요일-5주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본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가지는 가운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월 1일 기본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이종현 교수(경일대학교)

일시: 2011년 9월 1일(목) 7:20pm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제목: 교회와 창조과학

문의: ☎ 070-4095-6420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070-4095-6420
대구전시관(수도빌딩 2층)

남부경찰서

123노인요양
복지센터

1호선 영대병원역
1번출구

현충로역

명덕시장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2.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 전시관 사역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에서는 7월 7일(목) 오후 7시 30분에 공개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찬양팀 “도움”의 귀한 찬양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곧이어 김명철 선생님께서 “성경과 과학” (Bible and Science)란 제목으로 현대에 와서야 겨우 발견된 과학적 지식이 이미 성경 속에 들어 있음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지혜에 감탄과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월 1일(목, 오후 7시 20분-9시 30분)부터 5주차 과정으로 “창조과학 기본과정”이 대구전시관에서 실시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창조과학이란 도구를 복음전도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5일(목)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월 29일(주일)과 6월 5일(주일)엔 은혜로 교회에서 청소년부(엘틴)를 대상으로 “창조의 증거와 진화의 허구성” 및 “창세기 대홍수” (Genesis Flood; Mabbul))에 대해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6월 17일(금)-18일(토)에 걸쳐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홈스쿨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창조과학 캠프도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이든지요!^^* 주님을 더욱 더 경외하며 나아옴으로써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넘치는 통로로 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3.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기본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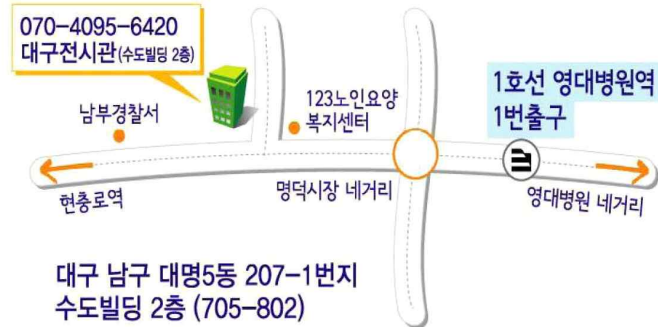
- **일정**: 2011. 9. 1 - 29일 (목)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19:20 - 21:30

- **장소**: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 **특전**: 심화 과정, 강사과정
수강 자격 부여

- **수강료**: 5만원 (8월 24일 전
등록 시, 그 이후 6만원)

- **문의**: ☎ 070-4095-6420
<http://creation21.or.kr>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 목 적 : 그룹별 성경공부 등에서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인 창조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

※ 수 료 :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단 4주 이상 참석하고 수강 소감문 혹은 창조과학 관련 자료 감상문을 제출하신 분)

※ 강의일정 및 프로그램 (시간: 19:20~20:20, 20:30~21:30)

| 일자(목) | 강 좌 | 강 사 |
|--------------|------------------------|--|
| 1주 9월 1일 |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 최승호 장로 (경북고 수학교사) 성영관 지부장 (경북대 의대 번역학 교실) |
| | 교회와 창조과학 (진화론 교육의 악영향) | 이종헌 교수 (경일대학교 토목공학, 아멘교회 장로) |
| 2주 9월 8일 | 생명체 - 그 완벽한 디자인 | 신동수 전시관장 (계명대 화학공학 명예교수, 계명대학교교회 장로) |
| | 창세기 5장의 계보에 숨겨진 놀라운 복음 | 김영철 교수 (계명대 건축학, 제일교회 장로) |
| 3주 9월 15일 | 사람 - 하나님의 슈퍼 걸작품 | 임진규 교수 (경북대학교 동물자원학, 동부교회 출석) |
| | 한자와 창세기 | 박종환 박사 (경북대 중등연수원, 동성교회 장로) |
| 4주 9월 22일 | 공통과 사람은 함께 살았을까 | 길소희 간사 (MI 국제교회 출석) |
| | 젊은 지구와 우주 | 김경찬 교수 (계명대 화학과, 동로교회 장로) |
| 5주 9월 29일 | 창세기 대홍수의 과학적 증거 | 권진혁 교수 (영남대 물리학과, 경산중앙교회 집사) |
| | 종강예배 및 기본과정 수료식 | 신동수 전시관장 |

산의 모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 오십 일 후에 감하고” (창 8:3)

and the water receded steadily from the earth, and at the end of one hundred and fifty days the water decreased. - Genesis 8:3, NASB

사람들에게 산을 그려보라 하면 그리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비슷하게 그린다. 아마 산 하부는 완만한 경사를 보이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파르게 되는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그리는 이유는 당연히 대부분의 산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산의 능선보다도 골짜기의 경사는 이러한 양상을 더욱 분명히 보인다. 골짜기 저지대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파르게 되는 지형을 보인다. 왜 대부분의 산과 골짜기들은 이러한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되어 이러한 모양까지 왔을까? 아니면 이러한 일괄적인 지형을 만들었던 사건을 모두 함께 겪었던 것이었을까?

유명한 지형학자인 핵(J. T. Hack, 1975)은 “동적평형, **dynamic equilibrium**” 이란 용어와 함께 “이상적인 경우에 지표의 변화는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오늘날) 지형의 모습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현재 지형은 그 모양으로 보아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오늘날의 지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어진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이 잘못된 것이며, 언젠가 형성된 후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산뿐 아니라 강의 단면도를 그리면 모두가 상부로 올라가면서 더 가파른 경사를 보여주는 “**지수함수(exponential)**” 모양을 보여준다(그림).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수함수라는 단어에 아주 친근하다. 왜냐하면 **많은 과학적 실험들이 지수함수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볼링공을 마루에 굴렸다고 하자. 그 볼링공의 속도는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그 속도가 감소한다. 그 감소하는 속도를 시간이나 거리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지수함수의 모양을 보여준다.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처음 속도가 마루바닥이나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줄어드는데, 줄어든 상태에 계속해서 저항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즉 **지수함수의 모양은 어떤 하나의 물리적 사건의 결과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analytical.wikia.com/wiki/Mountain>>

그렇다면 모든 산의 골짜기나 강의 단면도가 지수함수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어떤 물리적인 원인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의 침식이 아닌 짧은 시간에 산 전체 지형을 좌우할 커다란 침식 사건이 산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형학자인 헵의 내용과 지수함수의 산의 모양을 종합하면, 모든 산은 언젠가 지수함수의 모양을 만들만한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이래로 그 모양을 변화시킬 만큼의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노아홍수 후기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과정은 오늘날의 산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오늘날의 바다가 지구를 덮는다면 평균 2,590m의 깊이로 덮게 된다.**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닐 것이며 많은 흙도 포함한 물이었을 것이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에너지는 막대했을 것이다. 계곡과 넓은 강 폭도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할퀴고 간 흔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죄가 들어온 이래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죄가 들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한 전 지구적인 물심판이 남겨둔 흔적인 것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1, 5상).

산과 강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탄 없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출처: <http://www.hisark.com> **창조**

모세가 태어나다

(MOSES Is Born - Exodus 2:1-10)

모세 시대보다 거의 400년 이전에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었다. 그가 파라오를 위해 꿈을 해석하여 다가오는 기근을 경고했을 때, 파라오는 이 시기를 준비하라고 그에게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 수백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파라오가 등장했다. 그는 요셉과 그의 형제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았다.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

광주리(Wicker Basket)

히브리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칙령은 모든 땅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Jochebed)은 가는 가지를 엮어서 광주리(혹은 갈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왕의 군대로부터 모세를 숨기는 것이었다.

광주리는 나일강의 둑을 따라 많이 자라고 있는 속이 빈 갈대, 즉 파피루스로 만들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광주리는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만들었다. 이집트의 광주리는 튼튼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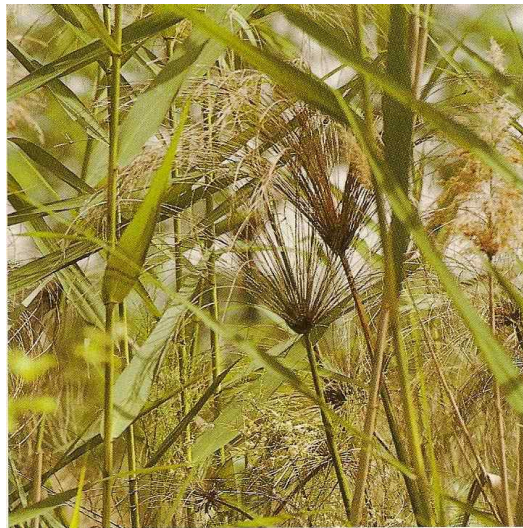


<모세 시대에 사용하던 이집트의 광주리 - 갈대로 만들었다.>

애기부들(bulrushes/파피루스)

일부 성경 번역에서는 모세를 애기부들에 태워서 나일강에 숨겼다고 되어 있다. 이 애기부들은 커다란 갈대로서 파피루스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감출 때 사용했던 광주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애기부들은 3 내지 4.5미터까지 자라고 두께는 7.5센티미터 정도이다. 그것은 강이나 호수의 독을 따라 자라고 뿌리는 물 밑으로 뻗는다. 고대에 종이와 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모세의 광주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파피루스 갈대>

파라오의 딸은 누구였을까?

나일강물에서 아기 모세를 구해낸 공주는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성 뿐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던 파라오인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몇 가지 실마리가 있기는 하다.

미스터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중요한 설(theory)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설은 모세가 매우 잔인한 파라오였던 람세스(Ramses) 2세의 통치시절에 자라났으며, 그 다음의 파라오인 메르넵타(Merneptah)가 왕이었을 때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잘 알려진 설은 모세를 구출했던 공주는 핫셉수트(Hatshepsut)으로써, 람세스 2세보다 200년쯤 전에 살았던 투트모스(Thutmose) 1세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핫셉수는 강한 여자였으며, 그녀의 이복동생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했다. 투트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들인 투트모스 2세가 파라오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통치한 것은 핫셉수의 철권통치였다. 핫셉수에게 자녀가 없었으므로 둘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투트모스 2세는 그의 하렘에 있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이집트의 다음 왕이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된다면 핫셉수의 권력은 그녀와 그녀 후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녀 자신의 자녀가 없으므로 핫셉수는 그녀의 남편에 대한 보복으로 모세를 길러서 다음 파라오가 되게 할 수 있었다.

나중에, 핫셉수는 모세를 양육할 또 다른 동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죽은 후에 그녀는 권좌를 차지하고 22년 동안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 자녀가 없었으므로, 모세를 발견한 것은 신들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그녀는 모세를 이집트의 다음 파라오가 되게 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길렀을 것이다.

모세는 언제 태어났는가?

모세는 요셉이 죽은 후 대략 300년 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다(1550-1500BC). 그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기근 동안에 처음으로 이집트로 온 지 430년 후에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냈다(출 12:40).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그는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 출 12:40, 개역개정

Now the time that the sons of Israel lived in Egypt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 Exodus 12:40, NASB

모세의 부모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Amram)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다. 그들은 아론(Aaron)과 미리암(Miriam)의 부모이기도 했다. 아므람은 레위족속이었으며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다.

파라오가 히브리인 남자 아이를 죽이기 시작했을 때,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 광주리를 만들어 그를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요게벳은 그녀의 아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그가 충분히 자라서 궁정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길렀다(출 2:3-9). **참조**

성경적 세계관의 의미와 적용 3

1)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과연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자연주의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에 편승하여 과학만능주의(scientism)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즉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거나, 자기를 계속 복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나, Internet의 발달로 자기가 혼자서 마음대로 자기만의 이상 세계를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들에게 유토피아(technopia)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현실은 어떠합니까?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만능주의: 과학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Scientism is the notion that natural science comprises the most authoritative worldview or form of human knowledge, and that it is superior to all other interpretations of life.

2) 성경과 사회, 과연 통합될 수 있을까?

성경/신앙과 세상사회/문화/학문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을 비평해 보십시오.

● 복음주의 일부 진영에서는 “이 세상은 속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서 사단의 지배 하에 있으므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문화적 회복도 불가능하므로, 현명하게 그것을 포기 하고, 교회와 신자는 오직 전도와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재림 이후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부 후천년 주의자(postmillennialism)들 및 해방신학에서는 “모든 신자가 때로는 무 력을 통해서라도 이 땅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성경적으로 회복하고, 구제와 사랑에 힘씀으로, 이 땅 위에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제국주의적 정복선교도 이런 범주에 포함)

각 주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신앙과 생활의 통합

세상 죄로부터는 분리(separation)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단절(isolation) 되어서는 안 된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독일철학자, 1724년 4월 22일 - 1804년 2월 12일)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계와 가치와 의미의 영역인 본체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이성이 활동하는 현상영역은 결국 비관론에 도달하게 되며, 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상충부인 의미와 가치영역의 비이성, 즉 신앙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그 두 영역이 아무런 통일이나 연관성 없이 서로 배타적인 질서로 완전히 나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칸트와 키에르케고르의 세계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른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주의 계시인 성경에서 출발하여, 현상계 즉 삶과 학문의 영역과 가치와 의미의 영역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입니다. 삶 따로, 학문 따로, 신앙 따로와 같은 성향을 철저히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mmanuel_Kant>

다음은 이종범 교수의 DEW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 강의 교안 『기독교적 세계관의 이해』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독하시고 느낀 점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요 지침이며,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세계관의 원리와 내용을 끄집어내고 세계를 보고 식별하는 원리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인간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의 축적된 경험과 사유를 통해 형성된 세계관으로 자기 판단과 관점을 과시하고 자연세계를 넘어서의 하나님 세계와 영계의 세계를 배제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지상, 현실, 역사차원을 넘어 천상, 내세, 역사를 넘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간섭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편에서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계에 대한 성경적 견해의 세 가지 요점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에 의한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은총에 의한 회복입니다. 둘째로 세계는 시공적으로 유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계는 물리적 현상을 초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신관, 인간관, 역사관, 문화관, 자연관, 윤리관 등 모든 것을 그 속에 수렴시켜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해 줍니다.

…… (중략)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은 그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치유책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줍니다. 세계관은 문자 그대로 삶의 전 영역을 밝혀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견도록 힘을 줍니다. 사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되심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방식에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많은 간격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문화적인 역사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는 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짐 왈리스(Jim Wallis)는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계관은 결국 삶의 전 영역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창조 목적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구원, 교회중심, 내세지향만이 아니라, 창조 때 세우신 목적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인 학문, 과학, 예술,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가정,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그를 진정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문제와 사회문제를 무시하거나 방관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인본주의 정신과 그 학문에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독교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이 부족하다고 보며, 여기서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은 삶의 전 영역에 대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유한 전임 사역자라는 개념을 소유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과 생활의 분리 내지 이원화를 배격하고, 진정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와 교회와 이 사회에 자리잡기 위해 우리 모두의 헌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창조 그랜드캐니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기념비적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것들 중의 하나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랜드캐니언에서 보여주는 격변적 대홍수 심판의 증거는 명백하고 압도적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향해 크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욥기 12:8에 “**땅에게 물어 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적혀있듯이...



<그랜드캐니언 매더 전망대(Mather Point)에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 욥기 12:7-10, 개역개정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